

嶺南地方의 出版文化

柳 鏞 一
釜山大學校教授

1.

太白·小白의 兩山脈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속에 七百里 洛東江이 굽이쳐 흐르면서 '沃野千里'를 이루한 그 盆地性的의 自然환경 속에, 小農本位의 部落經濟를 기저로 하여 형성된 血緣的의 共同體的의 同族部落은 '尙聚崇祖' '門閥重視'의 氣風과 嶺南人의 土着的의 執拗性을 낳게 하였다. <仁>을 崇尚한다는 小白山下의 退溪의 學風과 義를 爲主한다는 智異山下의 南冥의 學風은 깊은 學問과 훌륭한 人物을 배출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自然的의 社會的의 文化的의 基盤위에 발달한 出版文化는 全國의 어느 地方보다도 발달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典籍이란 하나의 文化遺産이니 반드시 그 社會的의 要求에 의한 이른바 社會的의 所産이기 때문에 그것이 公的이나 私的이나 하는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公的인 것에는 監營刊行本과 州縣刊行本 私的인 것에서는 書院(祠宇도 포함)刊本과 個人 또는 門中刊本 및 寺刹刊本의 5개 部門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筆者는 영남지방의 典籍文化를 캐기 위해 십수년 전부터 이 지방 刊行의 典籍을 調査하였더니 3,176種을 헤아릴 수 있었다. (1970년 현재) 이를 앞서 말한 公私性기준 밑에 그 내용별로 분류한 것이 다음 도표다.

2.

(1) 監營刊行의 典籍

嶺南監營刊行의 典籍은 監營이란 政治的의 行政的의 성격 때문에 治政에 필요한 서적이거나, 임금의 御撰·奉敎撰의 것이 주가 되고 이들의 刊行은 주로 下命式의 出版인 것이다. 이를 出版動機별로 분류한다면 첫째) 中央에서 治道의 要書로서 보낸 政敎用典籍刊行이니 七書類, 性理大傳, 朱子語類, 東醫寶鑑같은 巨帙의 典籍이 그것ियो.

둘째) 중앙기관에서 필요한 전적이지만 各監營에 分擔刊行後移送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같은 예는 영남監營에서 刊行한 '龍飛御天歌'(乾隆本)가 그 代表的인 例인 것이다.

셋째) 方伯으로서 治道·興文上 필요한 전적을 自體刊行하는 경우이니 '三綱行實圖' '二倫行實圖' 등이 代表的인 것이지만 醫書, 喪祭禮, 蒙學敎科書, 歷史書 및 杜詩, 唐宋八大家文 등 民風敎化 및 實用的의 전적의 간행이 많다.

넷째) 方伯이란 세도 아래 治道와 관계없이 자기 개인의 사정에 따라 文集이나 族譜를 刊行하였으니 監營刊本 116種中 文集이 21種 17.5%가 刊行된 것을 보면 這間의 社會風士를 엿볼 수 있는 바다.

嶺南監營刊行 116종의 다양한 내용을 여기 매거할 수 없으므로 생략하거나와 이 嶺南監營의 出版文化의 특징은 (1) 七書類가 어느 監營보다도 많이 刊行되었다는 사실ियो (2) 朱子語類 東文選같은 巨帙의 전적이 刊行된 점 (3) 個人文集이 많이 간행되었는데 그 文主는 대개 翼論系人士였다는 점ियो. (4) 監營刊本에는 그 末尾에 嶺南監營의 '木記'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2) 州縣刊行의 典籍

州縣刊行의 典籍은 대개 治數를 위한 계몽적 典籍이나 救恤을 위한 醫書들이 많이 간행되었다. 영남지방 全刊行中 州縣刊本이 176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內容들이 守令들의 私的의 出版이 심하게 보이지 않고 모든 部面에 골고루 出版되어 行政廳의 성격울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내용면에서 본다면 醫書간행이 두드러지고 다음이 文集類인 것이다. 地方守令의 祖先이나 學緣에 의해 出刊된 文集의 경우 安東지방이 典型的이다.

安東은 대도호부요 南人의 本據地라 하여도 과언은 아닌데 淸陰集(金尙憲) 農岩集(金易協) 등의 翼論系名賢文集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이는 安東人의 慕賢의 誠이 높아서 老論系文集을 간행하였다기 보다는 老論정권과 金氏勢道政治下에 都護府인 安東의 원자리는 老論系人士가 아니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같은 文集이 刊行되었으리라 믿을 수 있으나 南人이 본거라는 의미에서 고의적인 다른 色調가 있었을 可能性도 없는 바 아닐 것이다.

(3) 書院刊行의 典籍書院刊行의 전적은 주로 文集傳記類이고 다음이 儒家類인데 玉山書院의 '近思錄' 陶

嶺南地方刊行 典籍의 版元別 內容別 統計

柳鐸一：嶺南地方의 典籍文化研究(油印本 1970)에 의거

분류 간행성질 간행체 간행수			經									史							
			三 經 類	四 書 類	禮書		春 秋 類	孝 經 類	總 經 類	樂 類	小 學 類	史籍		詔 令 奏 請 類	存 業 類	傳 記 譜 版 類	政 書 職 官 時 令 類	地 理 類	目 錄 類
					韓 國	中 國						韓 國	中 國						
公刊	監營	刊行數	6	7	7	1	2	—	1	1	4	3	11	10	3	2	6	—	—
	州縣	刊行數	6	6	9	3	6	2	1	—	8	4	9	1	—	1	13	3	—
私刊	書院	刊行數	4	3	4	—	—	—	2	—	—	3	—	—	—	16	—	—	—
	門中 個人	刊行數	6	10	28	—	3	—	6	—	24	8	8	—	2	204	6	29	—
	寺刹	刊行數	—	—	—	—	—	—	—	—	—	—	—	—	—	—	—	—	—
未詳	—	—	—	—	—	—	—	—	—	—	—	—	—	—	—	—	—	—	—
合計	—	—	22	26	48	4	11	2	10	1	36	8	28	11	5	223	25	22	—

분류 간행성질 간행체 간행수			子											集				未 詳	合 計	%					
			佛 家 類	道 家 類	釋 家 類	術 數 類	字 韻 類	雜 家 隨 錄 類	兵 家 類	農 家 類	醫 家 類	天 文 算 法 類	法 帖 類	譯 學 類	小 說 家 類	別集					總 集 類	詞 曲 類	楚 辭 類		
																韓 國	中 國								
公刊	監營	刊行數	10	—	—	—	6	—	3	1	7	—	—	—	—	21	2	2	—	—	—	116	—		
	州縣	刊行數	3	2	—	1	8	1	10	8	28	4	—	—	1	26	2	4	—	1	—	5	176	—	
私刊	書院	刊行數	12	—	—	—	—	1	—	—	—	—	—	—	81	—	1	—	—	—	—	—	127	—	
	門中 個人	刊行數	151	—	—	1	9	33	—	—	6	—	5	—	2,168	31	106	3	—	—	—	1	2,369	—	
	寺刹	刊行數	—	—	245	—	—	—	—	—	—	—	—	—	1	—	—	—	—	—	—	—	—	246	—
未詳	—	—	—	—	—	—	—	—	—	—	—	142	—	—	—	—	—	—	—	—	—	—	—	142	—
合計	—	—	176	2	245	2	23	35	13	9	41	4	147	—	3,181	35	113	3	1	—	6	3,176	—		

山書院의 朱子書節要 虎溪書院의 朱書譜錄刊補등이 그 代表的 刊行이다. 書院에 奉安되는 名賢들의 文集은 거개가 그 書院에서 간행됨이 보통이다. 退溪集, 晦齋集 두선생 문집등이 그 實例가 된다. 그런데 하나 특기로운 것은 全國書院刊行과 비교해 보면(據鉸坂考)全國書院刊行수 189件중 67%인 127件이 嶺南地方書院에서 刊行되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상호해 불 문제지만 첫째, 同族部落의 발달. 둘째, 書院 祠守의 수가 他方보다 많았고 셋째, 顯祖의 후예라야 평생하던 時代에 血緣의 學問의 結속이 集中作用한 때문일 것이며 넷째, 山岳과 長江을 共有한 自然환경과 경제적 풍요

그리고 영남인의 土着的執拗性등이 함께 응결된 결과라고 分析된다.

(4) 儒林·門中 個人刊行의 典籍

이 地方刊行의 典籍 3,176종 가운데 2,369종 약75%가 血緣적집단인 門中이나 地域의 조직체인 儒林들에 의해서 刊行되었다는 사실이다.

文集이나 實記類의 刊行이 個人·門中刊行의 전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음은 뭐라고 해도 그 根本原因은 ‘尙賢崇祖’의 精神에서 연유된 결과인 것이다.

‘祖先崇拜’ ‘門閥重視’의 儒敎的 정신은 同族部落의 형성을 촉진시켰고, 그 同族은 그 一族을 代表할만한

혈연적 求心人物을 내세워 만들어야 그 지역사회에 행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증하려던 그의 詩文集을 刊行하여 頒帙함으로써 鄉內 또는 道內에 自己들의 좌포를 굳혔던 것이다.

이런 뜻에서 典籍出版의 本據는 書院을 中心한 것보다는 오히려 齋室이나 亭榭를 中心한 것이 월등한 것이라고 본다.

서원에서 문집을 刊行할 때는 鄉內의 의논이 맞고 또 그만큼 學問의 위치를 가진 분이라야 刊行되는 것이지만 齋室이나 亭子를 中心한 個人 또는 門中의 刊行은 그같은 規制는 받지 않았던 것이다. 3,000여종의 전적중 겨우 127件이 書院刊行인데 비해 個人門中 刊行의 文集數가 2,369종으로 거의 10배가 많다는 사실이 그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出版文化的 見地에서 볼 때 書院보다는 齋室·樓亭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齋室이나 亭子の 운영근거인 位士經濟의 바탕에서 文集類刊行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儒敎社會에 있어서 <祖先崇拜>와 <尙賢尊德>의 思想이 書院이라는 형태로 응결되어지던 것이 孝宗 6년이 후부터 書院의 폐해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급기야 고종때는 철폐령까지 내리게 되니 그 힘은 자유롭게 <祖先崇拜>의 뜻을 펼 수 있는 齋室이나 亭子로 옮겨가 書院의 기능이 齋室이나 亭子로 옮겨져게 되었다.

齋室이나 亭子是 ① 敎育의 場으로서 ② 優遊玩賞의

場으로써 ③ 會議의 場으로써 ④ 接賓의 장소로써 ⑤ 慕先의 장소로써의 諸기능은 <祖先崇拜>와 <門閥重視>의 그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文集刊行의 경제적 기반도 바로 齋室 亭子를 근거로 한 位士경제의 바탕에서 진행된 것이니 지금은 嶺南各地方에 수많은 散在한 齋室이나 亭子를 찾으면 으레 거기에는 文集의 冊板이 保管되어 있음은 바로 이것을 실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영남의 出版文化研究는 이 齋室 亭子와의 關係에서 研究될 때 그 眞面目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儒敎의 文化를 나는 樓亭文化라 할 수 있고 이 樓亭文化는 곧 出版文化가 그 핵심인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지연관계로 寺刊系는 생략함)

3.

이상에서 영남지방의 出版文化를 刊行전적 3,000종을 중심한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地方에 있어서의 出版文化研究는

- (1) 먼저 嶺南刊行 전적의 종합적 정리가 시급하고
- (2) 齋室·亭子の 位士경제와 出版資金문제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하며
- (3) 木活字 印刷本의 정리와 그 印刷사정과
- (4) 刻手들의 生態와 그 변천이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

<상세한 것은 필자의 嶺南地方의 典籍文化研究(油印本) 1970을 참조>

(6面에서 繼續)

그러므로 우리는 英國의 경우처럼 國立圖書館을 別個의 特殊圖書館으로 認定하고, 다만 國立中央圖書館을 현재의 位置에서 다시 首都의 中央에 交通이 편리한 곳에 移館하고 國家中央圖書館으로서 손색이 없는 建物과 施設을 갖추고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國立中央圖書館長은 外國의 경우처럼 別定職長官級으로서 補하되 8年以上 長期勤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에도 國立的 醫學圖書館과 農水産圖書館, 科學技術圖書館 등 專門圖書館을 별도로 더 設置해야 할 것입니다.

5. 圖書館行政機構問題

圖書館行政機構問題는 館界에서 여러가지 意見이 있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현재대로 公共圖書館과 各급 學校圖書館과 大學圖書館에 대한 行政은 文敎部에서 관장하되 文敎部內에 圖書館管理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公共圖書館과 中高等學校圖書館에 대한 직접적인 管理, 監督은 각 市·道의 敎育委員會

에 委任하되 적어도 圖書館專門家 3인이상이 敎育委員會의 委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大學圖書館의 行政管理는 직접 文敎部圖書館管理局이 관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科學技術分野의 圖書館을 비롯한 學術的專門圖書館은 政府의 關係部處에서 管理監督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美國이나 英國등의 先進國에서처럼 大統領直屬이나 國務總理直屬下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圖書館政策과 國家의 文獻情報管理問題를 항상 研究하고 運營管理의 方向을 강구할 委員會를 두어야 할 것이며, 그 委員會는 文敎部長官을 비롯해서 文敎部 科學技術處 保社部 등의 長官과 國立中央圖書館長, 國立 및 私立의 主要한 綜合大學圖書館長 및 3名 이상의 圖書館專門學者들로 構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